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T시를 중심으로-

한상영^{1*}

¹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A Study on the interracially Married Female Immigrant's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 Qualitative Methods

Sang-Young Han^{1*}

¹Department of Nursing, Kangwon Tourism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에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다문화가족 적응 형태를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보다 질적이고 개별적인 간호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기틀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연구참여자는 여성결혼이민자 총 13명이다. 연구방법은 관찰과 심층면접, 상담, 그리고 주변 인물들을 통한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Spradley(1990)의 문화기술지 방법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에서의 양육경험을 통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에게는 ‘의사소통의 장애’, ‘열악한 양육환경’, ‘이질적인 문화’, ‘양육책임의 떠남’, ‘고국가족에 대한 그리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가족에게는 ‘수치감’, ‘양육의 무관심’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는 ‘외톨이’, ‘언어발달의 장애’, ‘학습능력의 부족’, ‘영양불량’, ‘문제행동’이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가족의 공통적인 요소에는 ‘다문화 이해부족’, ‘의사소통 단절’, ‘종속관계’, ‘신뢰감부족’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공통적인 요소에는 ‘외모의 차이’, ‘가족사회적 차별’로 나타났다. 가족과 자녀의 공통적인 요소에는 ‘양육 참여 부족’, ‘놀이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자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는 ‘사회적 편견’, ‘불안정한 가족분위기’, ‘저소득’, ‘한국인으로 뿌리내리기’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ffer a foundation of developing the more qualitative and individual nursing-intervention strategy for allowing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possibly grow and develop as a Korean without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in Korean society. Period of data collection in this study was from April 2010 to May 2011. Subjects of this study are totally 13 married female immigra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who have preschool children of dwelling in T city. Data analysis is qualitative research that applied Spradley(1990)'s culture-descriptive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The common elements, which are shown in married female immigrants, children, and family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were indicated to 「social prejudice」, 「exclusive family atmosphere」, 「economic difficulty」, 「coexistent different culture」

Key Words :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aring experience

1. 서 론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게 되는 여성결혼이민

자는 2008년에 127,683명에서 2009년 161,999명으로 급증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자녀 출생 증가로 이어져 2010년에는 121,935명으로 2009년 대비 14,246명(13.2%)이나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Sang Young Han

Tel: +82-33-550-6376 e-mail: laurabest@hanmail.net

접수일 12년 10월 22일

수정일 12년 11월 06일

게재확정일 12년 11월 08일

더 늘어났다[1].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게 됨으로서 다문화 가정 내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에 경험하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측면으로 상당수의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언어불일치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적응문제[2],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우울증 등의 정신·심리적 측면의 문제[3]. 또한 가족적 측면으로 시댁 식구와의 갈등,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 폭력과 인권 침해, 사회적 측면으로는 피부색이 다름으로 인한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4]. 이렇게 결혼여성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결혼여성 이민자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5].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속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느끼고[6], 학교생활에서는 언어발달이 늦어 언어습득 지체현상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7], 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수업의 이해도가 떨어져, 학습부진으로 발달장애나 학습장애 등의 어려움이 있다[8]. 또래집단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외모차이, 언어발달 미숙,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이나 소외당하는 불이익을 경험한다[9].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미취학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0].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에서 어머니가 충분한 언어습득, 기초생활습득, 교육, 정서적·심리적 안정감, 사회성을 제공해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발달이 지연될 위험성이 일반 가정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높다[11]. 미래 다문화 가정의 자녀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그들의 자녀양육과 관련한 문제 해결 방안에서 논의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경험하는 한국사회 내에서의 문화적 관점에서 확인, 기술, 설명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양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 정보 제공자의 살아 있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다양한 요구를 이해하며 각각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 문화기술학적 접근으로, 한국의 결혼여성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다문화가족내의 적응관계를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보다 질적이고 개별적인 중재 전략을 개발하는 기틀을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의 다문화가족 적응관계를 경험사례로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분석하며 의미를 발견하기 위하여 Spradley(1990)[12]의 문화기술학적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여성 이민자들에게 적합한 질적이고 개별적인 중재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다.

2.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표 1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남편과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취학 전 아동을 둔 결혼여성이민자들로 총 13명이다. 나이는 23세~29세였고 국적은 베트남 등 총 6개국이며 학력, 종교, 직업, 한국거주기간, 배우자 나이 및 직업등 최소한의 정보만 질문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자녀 나이는 2세~5세로 남 10명, 여 5명이었다.

2.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10년 4월부터 2011년 5월까지 13개월 동안 1~3차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와 그들의 경험세계를 공감하고 이해와 흥미를 갖는 친구가 되어야 하므로, 연구대상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의 시간은 1회에 2시간 정도였고, 면담의 시작은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또는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나요?”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로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며,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고, “아기 키우는 것 어떤가요?”, “자녀의 양육은 어떤가요?”, “어머니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 양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와 같이 점차 연구주제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중 발음이 부정확 한 것과 중요한 점 등은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였으며, 핵심내용이 나오더라도 연구대상자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대화가 끝난 후 확인하고 부족한 내용은 다음 면담 시 다시 질문하여 일관성이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면담자료의 누락 및 사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승인 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며, 면담 과정 중 그들의 행위나 말, 표정, 경험, 느낌 등도 함께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ommon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Participants	Age	Nationality	School career	Religion	Job	Children	Korean residency period	husband	
								Age	Job
Case 1	26	Vietnam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Buddhism	House wife	One five-year-old man	Six year	52	Labor
Case 2	27	Cambodia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Buddhism	House wife	One four-year-old woman	Four year	51	Miner
Case 3	28	Philippine	College graduation	Catholic	A lecturer in English	One five-year-old man	Six year	54	Driver
Case 4	29	Thailand	Middle school graduation	Buddhism	House wife	One four-year-old man	Five year	47	Farmer
Case 5	29	China	Drop out of high school	No religion	House wife	One five-year-old man and One three-year-old woman	Six year	43	Miner
Case 6	25	Philippine	College graduation	Catholic	House wife	One five-year-old man	Five year	53	Driver
Case 7	24	Vietnam	Middle school graduation	Buddhism	House wife	One two-year-old woman	Three year	52	Driver
Case 8	28	Philippine	high school graduation	Catholic	House wife	One four-year-old man	Five year	53	Farmer
Case 9	26	Vietnam	Middle school graduation	Buddhism	House wife	Two five-year-old man and two-year-old	Five year	52	Labor
Case10	27	Cambodia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No religion	House wife	One four-year-old man	Four year	42	Driver
Case11	28	Philippine	College graduation	Catholic	A lecturer	One five-year-old man	Six year	45	Driver
Case12	26	Thailand	high school graduation	Buddhism	House wife	One four-year-old woman	Four year	47	Farmer
Case13	23	Uzbekistan	College graduation	No religion	House wife	One three-year-old woman	Four year	43	Electrician

2.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radley(1990)[12]가 제안한 영역분석, 분류분석, 성분분석, 문화적 주제 발견, 주제 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Spradley의 영역분석과 분류분석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시켰다. 우선 연구 참여자별로 녹음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전체적인 이미지를 확인한 후 그대로 글로 기록하기 위하여 녹음된 자료를 필요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양육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자료에 밑줄을 그은 후, 유사성을 가진 자료끼리 분류하여 속성을 확인하고 범주화 하였으며, 범주화와 관련된 영역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해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영역 중에서 원본 자료를 근거로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포괄적이고 연계되어 있는 영역을 문화적 중심주제로 선정하였다. 통찰성,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질적 간호를 전공하는 교수 및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심

층적인 고찰을 위해서는 다른 사례 및 개념들을 반복적으로 심사숙고하여 비교하였다.

3.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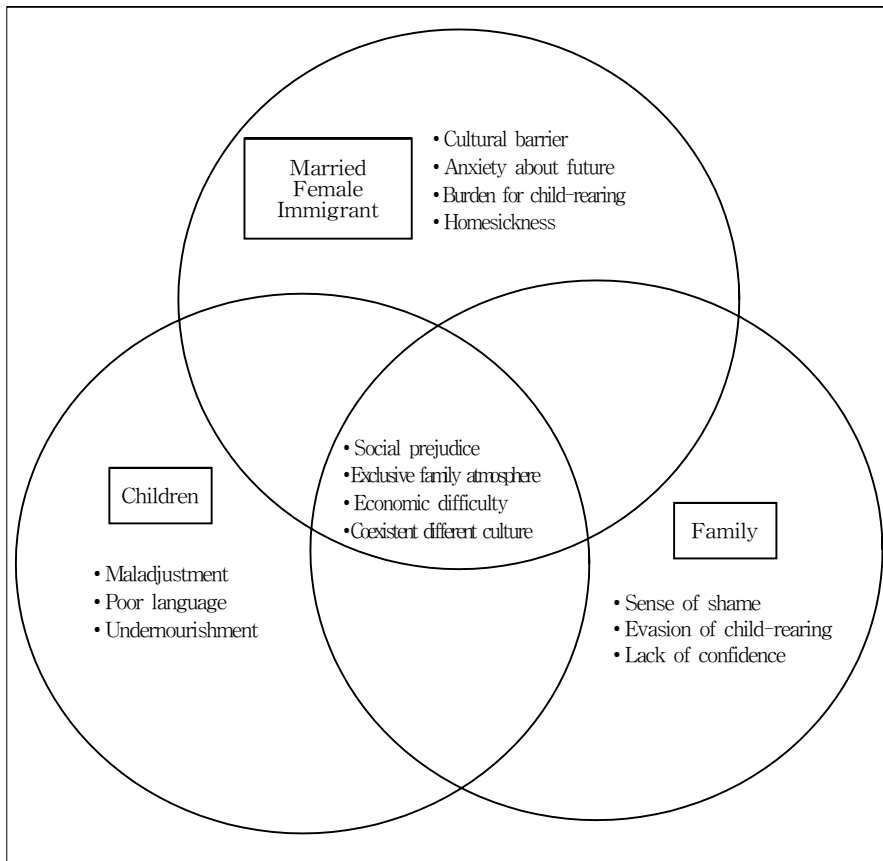
결혼여성이민자의 다문화가족 적응 관계는 결혼여성 이민자, 자녀, 가족의 범주로 주제 분석하였다.

3.1 결혼여성이민자

구성요소는 ‘문화적 장벽’, ‘미래의 불안’, ‘양육의 버거움’, ‘향수’로 요약 할 수 있다[그림 1].

3.1.1 문화적 장벽

참여자의 결혼은 결혼업체를 통해 한국에서 결혼생활한 지 5년째로 한글학교에 다니지만 여전히 한글 이해가 부족하여 남편을 동반하여 시장보기 등을 하고 있으며



[그림 1] 결혼여성이민자, 자녀 그리고 가족의 적응관계

[Fig. 1] Adaptation relationship of married female immigrant, children, multicultural family

남편이 집을 비울 때는 본국으로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 국제전화료 때문에 남편과의 다툼이 자주 있어서 그때 마다 남편을 나쁘다고 표현 한다.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겪는 생활의 장애로는 한글의 뜻과 이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녀들의 교육도 언어의 장벽으로 힘들게 느껴 자괴감이나 열등감, 자신감 부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들은 결혼초기에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겪으면서 좌절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편과 시댁 식구 간에 의사소통 장애로 자존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웃주변들과도 언어장벽이 높아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시댁에 가서 친척들하고 이야기 하면 정말로 많이 힘들어요. 이야기 하면서 막 웃는데, 나는 왜 웃는지 잘 모르겠고. 형님이 잘 가르쳐 주지만, 계속 물어 보지도 못하겠고.”

참여자는 언어장벽에 대한 노력으로 방송매체를 통해 언어를 습득하고자 TV를 학습의 목적으로 하루 종일 시

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남편, 시어머니, 이웃집, 다문화센터 선생님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들과 의사소통의 문제로 학습지도나 고민 거리를 내놓고 해결할 수 없었고 진실 되고 깊은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초기 문화적응을 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는 것으로 보였다. 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업어서 기르는 경우와 옆으로 안아 기르는 방식의 차이, 자녀가 백일이 되는 날, 머리를 깎는 문화의 색다름, 자녀를 탁아소에 맡겨 일터로 나가는 문제 등의 갈등이 자국에서는 볼 수 없는 문화의 이질감으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아기랑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잠자고, TV만 보고 그래요”, “일주일에 두 번씩 양육사선생님한테 한글 배워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모를 때는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서 숙제 도와줘요.” “시엄마가 포대기로 업고 있어라 하지만 난 못 업어요 베트남에서는 옆으로 안아

요”, “업고 다니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요.”

3.1.2 미래의 불안

참여자는 자녀의 미래와 장래에 큰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으며 불분명하고 암담한 미래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교육비를 걱정하고 있었으며, 미래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업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또래 아이들과 피부색이 다른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쉽게 눈에 띄어 보이고 자녀와 함께 동행 할 때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로 불편감을 느꼈다. 늘 자녀의 외모가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생김새 때문에 왕따 될까봐 정말 걱정이예요”,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놀림당할까봐 걱정해요”

3.1.3 양육의 버거움

대부분의 사례 자들은 양육에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언어 문제들과 사회 문화적 차이, 남편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느끼는 서운함과 시부모의 지지부족으로 오는 생활 태도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도 시부모의 남편 감싸기는 자녀와 둘만 소외당하는 기분을 가지게 되어 서운함을 드러냈다. 결국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사례 자들이 자녀의 모든 양육을 떠맡아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자녀들도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으며, 이로 인해 느끼는 힘겨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너무 힘들어요. 아이 키울 때도 한국 남자들은 애기 안 봐요.” “시어머니는 늘 아침만 드시면 노인정에서 놀다가 저녁 되면 와요. 아이 안 봐요”, “시어머니는 아이가 밤에 자다가 울면, 나만 보라고 해요”

3.1.4 향수

참여자들은 한국 생활에서 홀로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신체적 부담, 양육방법의 미숙함, 감정(서운함, 슬픔, 우울 등), 친정의 그리움 등을 겪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모국어를 자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답답함과 서러움을 느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음성통화는 물론 화상통화를 이용하여 고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우리말을 잘 못하게 되면 답답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해요”, “엄마랑 화상 통화하면 눈

물이 많이 나요. 엄마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화상으로 엄마 얼굴 보면 좀 마음이 나아져요”

이상에서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자녀양육의 경험을 통해 두 문화를 이해하지 못함과 남편과의 준비 없는 만남으로 인하여 가족들의 혼란과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많은 오해와 갈등을 낳게 된다. 한국사회의 가부장적문화에 젖어있는 남편들은 외국인 아내에게 무조건적으로 남편에 대한 순종과 양육의 문제를 떠맡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시부모의 공경도 한국의 아내들처럼 다르지 않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시부모들도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편견과 아들의 생활력 부족으로 외국에서 며느리를 금전 대수하여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것을 주위 이웃들과 쉽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식의 양육도 문화의 이질감으로 인해 많은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다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한국문화만을 강요하는 분위기와 국수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차별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3.2 다문화 가정 자녀

구성요소는 ‘부적응’, ‘언어미숙’, ‘영양부족’으로 요약 할 수 있다[그림 1].

3.2.1 부적응

참여자의 자녀는 유치원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많아 주로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 또래 아이들과의 친분 쌓기에는 시간적 공백이 길어 보였다.

“처음에 어린이집 들어가서 우리아이가 불려쌓기만 하고 놀았대요”. “자기 친구들도 까만색이면 좋겠다고 해요”, “유치원에서 우리아이를 ‘초콜릿’이라고 놀렸나 봐요. 아이들이 ‘너 초콜릿 많이 먹어서 그렇게 까맣지’

참여자는 남편의 넉넉하지 못한 수입과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등 이질적인 문화차이로 인한 가족 간의 스트레스 등으로 과격하게 자녀들을 훈육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몇몇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의 과격한 훈육으로 인해 어머니처럼 행동이 거칠어지고 가족에게 폭력적 행동을 나타냈다. 또한 언어발달이 늦고 또래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어려워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얼굴(鬍)을 때려요. 그러면 말 잘 들어요”, “만약에 또 잘못을 하고 잘 말을 안들 때는 회초리를 옆에다 놓고 이야기 하죠. 엄한 표정으로요”, “동생을 막 때리

고 행동이 저질어요”, “누나한테 막 욕하면서 ‘씨씨.’”

3.2.2 언어미숙

참여자들의 자녀들은 엄마와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단절로 모아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신뢰감 형성이 어려워 자녀의 행동의 표출방식이 비정상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언어학습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글 학습지를 통한 교육을 선택하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공부하기를 강요하는 등의 강압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사례자들은 자녀들과의 학습에서 한글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자녀들이 묻는 간단한 질문에도 대답하기 힘들어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원활한 언어습득을 위하여 아이의 나이에 비해 보육원에 빨리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의 미숙한 의사소통으로 초기의 보육시설의 생활은 또래와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의 관계형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아이의 학습지 숙제가 있는데, 한국어 높임말 숙제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어른들께는 식사가 아니라 진지잡수셨어요?’ 이렇게 해야 하고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숙제를 잘 못 봐주겠어요”, “유치원에서 받아쓰기 숙제가 있는데, 내가 발음이 잘 안되니까, 불러주면 이상하다고 해요. 유치원 선생님하고 틀리게 말 한대요.”

3.2.3 영양부족

참여자는 한국음식 만들기 미숙하여 자녀들에게 영양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인이 만든 음식이 자녀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아 잘 먹지 않게 됨으로써 자녀의 건강과 또래보다 왜소함으로 인해 영양부족을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댁에서 남편과 자녀가 음식을 잘 먹고 만족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음식솜씨에 대한 자존감 상실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아이가 4살인데 18kg 라서 걱정이예요”, “자기 친구들 보다 많이 작아요”, “햄버거, 피자 이런 거 많이 주게 돼서 걱정이예요”

이상에서 결혼여성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문화적 차이와 겉으로도 드러나는 피부색은 자녀들이 유치원에서 갈등이나 놀림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외모의 차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인종적 차별의 모욕, 삶의 상실감을 가져와 열등감이 고조되었다. 이로 인하여 자존감 상실, 자신감 저하 등을 초래해 결혼여성이민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나타났다. 자녀의 양육환경도 협소한 양육 장소나 경제적 빈곤함, 의사소통 부족과 한국 음식의 미숙함 등 이질적인 문화차이로 인한 가족 간의 스트레스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양육환경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나타났다.

3.3 다문화 가정 가족

구성요소는 ‘자괴감’, ‘양육회피’, ‘신뢰감 부족’으로 요약할 수 있다[그림 1].

3.3.1 자괴감

참여자의 시부모는 아들의 직업, 나이, 경제력 등이 부족함으로 한국 여성과 결혼을 성사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외국인 여성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외국인 며느리를 친지나 이웃에 자신 있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자도 한국의 이주민으로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한국인들과 피부색의 차이에 대한 열등감으로 바깥출입을 원하지 않는 등 대인기피증을 보였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가족 제사에 나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유치원에서 엄마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 아이와 저만 까마니까 아이들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에는 혼자 나갈 수 있지만 좀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하니깐, 밖에 잘 안 나가요.”

3.3.2 양육회피

참여자의 남편은 연령이 비교적 많아 자녀들과는 세대 차이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녀들과도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수동적 양육태도를 보여 불만이 많았다. 또 다른 사례자들의 남편들도 가정에 경제적 빈곤으로 장시간의 노동생활(일용직, 광부, 운전기사 등)을 해야 함에 따라 집에 들어오면 피로가 쌓여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핑계로 자녀와 놀아주기를 꺼려했다.

“우리 아이는 남자 아이라 아빠가 함께 놀아주면 좋은데, 아이 아빠는 일요일이면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고, 집에 있으면 폭 쉬어야 내일 일 한다고 하고..”

3.3.3 신뢰감 부족

참여자는 처음 남편과의 계약형태의 만남과 결혼으로까지 그리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의 종속관계형태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남편으로부터 약 오십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불신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남편이 처음 결혼할 때 우리집에 2천만을 줘서 결혼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요”, “내가 생활비를 좀 더 달라고 하면 도망갈 수 있다고 잘 안줘요”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 대개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매매혼적 결혼으로 남편에게 경제력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편들은 결혼여성이민자들에게 자녀양육을 일방적으로 떠맡기기는 물론 가사노동도 상호 평등관계가 아닌 상하 종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위해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두 번 만남 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 부부사이 및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3.4 결혼여성이민자와 자녀 그리고 가족의 공통적 적응관계

결혼여성이민자와 자녀 그리고 가족에게 느끼는 공통적 견해로 ‘사회적 편견’, ‘배타적인 가족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공존하는 이질문화’로 볼 수 있다[그림 1].

3.4.1 사회적 편견

결혼여성이민자에게 외모는 물론 가정생활의 모든 면들이 한국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쉽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와 오해 등이 결혼여성이민자들에게는 한국사회에서 적응을 어렵게 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이룬 가족들은 한국의 남편이며 아빠이지만 외국여성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편견과 오해의 눈길 속에서 한국가족의 일원으로 삶을 영위하기는 힘들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유치원이나 교육문화센터에서 또래아이들과는 달리 외모는 물론 언어소통의 차별로 인해 외톨이로 성장해나가는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3.4.2 배타적인 가족 분위기

타국의 여성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임으로 가족과 자녀 등, 서로들 간의 의사소통 부족, 이질적인 가족문화, 자신 위주의 사고방식 등으로 서로가 오해와 불신으로 인해 원만한 가족분위기 형성을 하지 못하고 눈치 등으로 위태로운 가정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었다.

3.4.3 자녀 학비(미래)에 대한 걱정

대상자들은 대부분 가정 경제가 어려워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는 어려웠고 대부분의 남편들은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으며 150만원 남짓의 한 달 수입으로는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 이렇듯 현실적으로 넘겨지 못한 형편에 불안함을 느낀

결혼여성이민자들도 생계수단을 위해 공장이나 파트타임 학원 강사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자녀를 위한 교육비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3.4.4 공존하는 이질문화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이국생활에서의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불완전한 양육환경과 이질적인 문화로 인한 시부모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은 갈등이 생기지만 한국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스스로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가 보였다. 또한 이방인으로서의 차별이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한국에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들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해준은 물론 절약정신 등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더 나아가 한국에서의 취업 등으로 경제적인 소득을 얻게 되면 완전한 한국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4. 논의 및 결론

결혼여성이민자의 다문화가족내의 적응관계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의사소통 장애로 소극적인 양육 활동이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녀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낯선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면서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한국어 구사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장애라고 나타냈다[13].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언어 장애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국어 습득을 위해 대중매체나 TV 시청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학습지 교육과 한국어 조기 습득을 위해 만2세~3세 때에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교육으로 내면화 되어 자녀들 역시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게 될 위험성이 있고 더불어 학습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언어교육뿐 아니라 학습지도를 위한 안내, 중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결혼여성이민자들이 부모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서 느끼는 자괴감, 열등감 등으로 부터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양육문화의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것은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자라온 배경, 다시 말해 사회적 문화배경과 가정환경,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역할 모델링 등에 영향을 받는 교육관, 가치관, 신념 등이 한국의 가족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므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은 가족 간의 신뢰감 형성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결혼여성이민자의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상황이 지속되리라 본다. 그러므로 결혼여성이민자와 가족들이 다문화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육방식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아동간호 및 모성간호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가족 모두 넓은 시각으로 문제해결에 대처할 수 있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양육의 버거움을 나타냈다. 다문화가정에서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엄마가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부장적인 한국 가정 남편의 수동적 양육 자세는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어린나이에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혼란을 겪으며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녀를 돌보는 경험과 부족으로 바람직한 양육환경을 만들기 어렵다. 결혼여성이민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으며, 필요할 때 자녀를 돌봐주거나 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도와줄 지지 체계의 부재로 인한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14]. 따라서 결혼여성이민자들을 돕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육지원 서비스와 수시로 상담 가능한 아동 전문 상담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결혼여성이민자들이 다문화가족내의 적응 경험을 통해 바라본 자녀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양육경험을 통해 바라본 자녀는 또래집단의 부적응으로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정서 발달 부족으로 초기의 보육원 생활에서 또래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고 보육교사와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외톨이’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언어적 제약으로 인해 또래관계 형성이 어려워 혼자 놀이형태를 보이거나 또래의 놀이 행동을 탐색한 비놀이 행동을 나타내 유치원에 부적응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즉, 소극적인 태도로 사회성이 부족하여 친구와의 사귀기 서툴렀으며 집단 활동 시 혼자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이 학령전기의 자녀들이 또래와의 형성관계가 어려워 불만과 위축감으로 한국 사회에 부적응한 결과를 보이며, 더 나아가 아동기, 청년기까지 이러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언어소통 부재 등으로 다소 일탈된 행동으로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공격적 성향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들은 부모의 문제 해결 도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답답해하고 불만족을 호소하며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엄격한 훈육, 사랑과 인내가 지원되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바른 한국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어머니와 상호형성 과정에서 ‘언어발달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결혼여성이민자들은 발달단계상 언어습득 능력이 빠른 시기에 놓인 자녀의 언어 발달에 관심을 많이 가지며 가정에서는 학습지를 통해 한국어 습득에 적응시키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또래들과 장시간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잘 배워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언어발달 지체로 인한 학습 능력부족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학습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개별적인 학습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

4.2 결혼여성이민자들이 자녀 양육경험을 통해 바라본 가족

다문화가정 시부모들은 언어와 생김새가 다른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시선들이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였으며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선입견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 가족들에게 나타나는 의미는 ‘수치감’과 ‘열등감’이었다. 그러므로 시부모와 결혼여성이민자가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대변해주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조정해주는 외부적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가정 시부모와 남편들에게 나타나는 의미는 자녀 ‘양육의 무관심’이었다. 다문화가정 남편들은 바쁜 일정과 힘든 노동으로 자녀와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녀에 대한 무관심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결국, 양육은 결혼여성이민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이로 인해 많은 부담을 앓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서 저소득, 이질적인 문화로 인한 스트레스, 결혼여성이민자가 경제권을 갖지 못함 등으로 가족 내의 ‘신뢰감 부족’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당당하게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과 노력은 물론 다문화가정을 위한 개별적인 전문 상담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4.3 결혼여성이민자, 자녀 및 가족의 공통적 적응관계

다문화가정은 아내가 외국인이라는 특성으로 일반가정과 다르게 이중문화가 함께 공존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정의 형성 배경에 편견과 오해의 선입견을 가지고 국제결혼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단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에서 다문화가정은 일반가정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했다[16]. 본 연구에서도 결혼여성이민자에게 외모는 물론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와 오해 등으로 한국사회에서 적응을 어렵게 했다. 한국의 남편들도 한국사회에서 외국여성과 결혼하여 생활하고 있다는 편견과 오해의 선입견으로 삶을 영위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사회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와 다른 인종·민족·가치관 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혼여성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어 자녀들이 완전한 한국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을 위하여 그들의 요구에 기반을 둔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올바르게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여성이민자뿐만 아니라 자녀와 가족들이 갖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사회단체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통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개발과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해본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0 local authorities against foreign resident status". Survey press release, 2010.
- [2] Kwon, B-S., Cha, B-H.,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rian Housewives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58(3), pp.109-134, 2006.
- [3] Seol, D-H., "Foreign wives' life in Korea :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 [4] Kim, D-H., Park, Y-J., Lee, G-E., "A study on parenting practice for immigrant women in rural area of korea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Rural Society. Vol.17(2), pp.97-112, 2007.
- [5] Park, M-K, "The traits of the children from the families of multicultural backgrounds and the difficulties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responsible for them: Focusing on the families of marriage immigrants". Unpu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07.
- [6] Seo, O-H., "A Study of Women's Marital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Families with Influencing Factors". Unpu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Kwangju, Korea.
- [7] Yong, H-J., "The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family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 mental health of their children". Unpu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9.
- [8] Wang, H-S., "Terms of Address in Korean Society". The Sociolinguistic Society of Korea, Vol.13(1), pp.277-291. 2005.
- [9] Hong, J-J., "A Study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youth in mongolian migrant workers' family", Unpu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4.
- [10] Seol, D-H., "Child raising and educatio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in Korea: On the focus of infants".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Vol.52(4), pp.403-409. 2009.
- [11] Cho, M-Y., "An exploratory study on the mentoring process for mothers with infants and young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2010.
- [12] Spradley, J. P., "Participant observation.(H-B. Lee, Trans.)", Korea: Mirae N Co, 1990.
- [13] Nho, M-H., "A Study on Child Rearing in Marriage Immigrant Families. Unpu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2009.
- [14] Kang, Y-S., Kim, Y-S., Kim, K-S.,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Behavior in Multi -Cultural Families on Teacher -Child Relations", Children's Media Studies, Vol.9(2), pp.67-92, 2010.
- [15] Kang, Y-S., Kim, Y-S., Kim, K-S.,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Children's Socioemotional Behavior in Multi -Cultural Families on Teacher- Child Relations", Children's Media Studies, Vol.9(2), pp.67-92, 2010.
- [16] Park, E-H., "The Influence of 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Social Support on Adjustment in School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Unpu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2009.

한 상 영(Sang-Young Han)

[정회원]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관광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모성간호, 아동간호, 노인간호